

튼튼한 기업을 육성하는



전국의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통상·산업·자원 분야 종사자 여러분!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보내고,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1997년 정축년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조선·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산업에서는 세계 2~6위의 생산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작년까지 우리의 GNP와 1인당 국민소득은 50% 이상 성장하였으며, 수출은 '92년에 비해 무려 70% 가까운 증가에 해당하는 500억\$의 순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2월에는 선진국 경제협의체인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과는 기업인·근로자·국민 모두가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95년말 이후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국제수지도 크게 악화됨에 따라 작년에 우리 경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기업이 무한경쟁을 전개하는 - 말하자면, 경쟁여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여건속에서 대내적으로 볼 때는 고비용-저효율의 산업구조가 지속되면서 산업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 속에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경쟁대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상 · 산업 · 자원정책

이에 따라, 금년에 통상산업부는 - 「튼튼한 기업을 육성하는 통상 · 산업 · 자원정책」을 펴나간다는 목표 아래, 3대 정책과제로서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10% 이상 제고하며, 강력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통상무역부문에서는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WTO와 OECD, APEC 등에서의 세계경제질서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교역국과 미래지향적인 통상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부문은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제조업의 성장けん인차적 역할을 강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과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10% 이상 높여나가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둘 것입니다.

특히,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혁신 분위기를 고취하여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창출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수입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자유화와 경쟁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고자 합니다.

전국의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통상 · 산업 · 자원 분야 종사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21세기초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현장의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서 일치단결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루고,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때에만 - 비로소 세계일류의 경쟁력 배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내 몫 찾기”보다는 “내 몫을 다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통상산업가족 여러분은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진경계권으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 정축년 한 해동안 우리 모두의 건투를 함께 다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1월 1일

통상산업부 장관 안 광 구